

# 검찰, 5·18 헬기사격 수사 착수...전두환도 조사할까

### 광주지검 조비오 신부 유족 사자명예훼손 고소 관련 국방부에 출격일지·탐승자·탄약 등 자료 일체 요청 전두환 소환 여부 관심...檢 “아직 말할 단계 아니다”

검찰이 5·18민중항쟁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수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되는 국방부 5·18특별조사단의 활동과는 별개로, 수사권을 지닌 검찰이 진실 규명에 나선다는 점을 들어 5월 단재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헬기 사격의 ‘스모킹 건’인 당시 탐승자 등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질 지도 관심이 쏠린다.

광주지검은 지난 31일 “고 조비오 신부의 유족이 제기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고소사건(광주일보 4월 28일자 6면)과 관련, 정점인 헬기사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방부에 관련 자료 일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광주지검은 국방부에 당시 군 헬기출격 일지 및 탐승자 명단, 탄약 지급 여부 등 헬기 운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자료를 공식 요청했다. 국방부도 관련 자료 요청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은 5·18당시 헬기 운행과 관련해 기존 검찰의 수사 자료와 증언, 언론 보도 등 다양한 관련 자료도 수집 중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5·18민중항쟁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전두환 회고록’을 통해 비난했다가 지난 4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전 전 대통령은 올해 출간한 회고록에서 조 신부를 실명으로 거론하며 “(헬기기총소사 증언은) 헬리콥터 기체 성능이나 특성을 몰라서 하는 얘기거나 계엄군의 진압 활동을 고의적으로 왜곡하려는 악의적인

주장”이라고 했으며 “조비오 신부는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허위 주장을 반복하지 않았다.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와 5·18기념재단은 광주 금남로 전일빌딩(옛 광주일보 사옥) 10층 내부 총탄 흔적은 헬기 기총소사에 의한 것이 유력하다(광주일보 1월 13일 1·3면, 4월 20일자 1·21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첫 공식검정서와 2차 검정서를 광주지검에 제출한 고소장에 첨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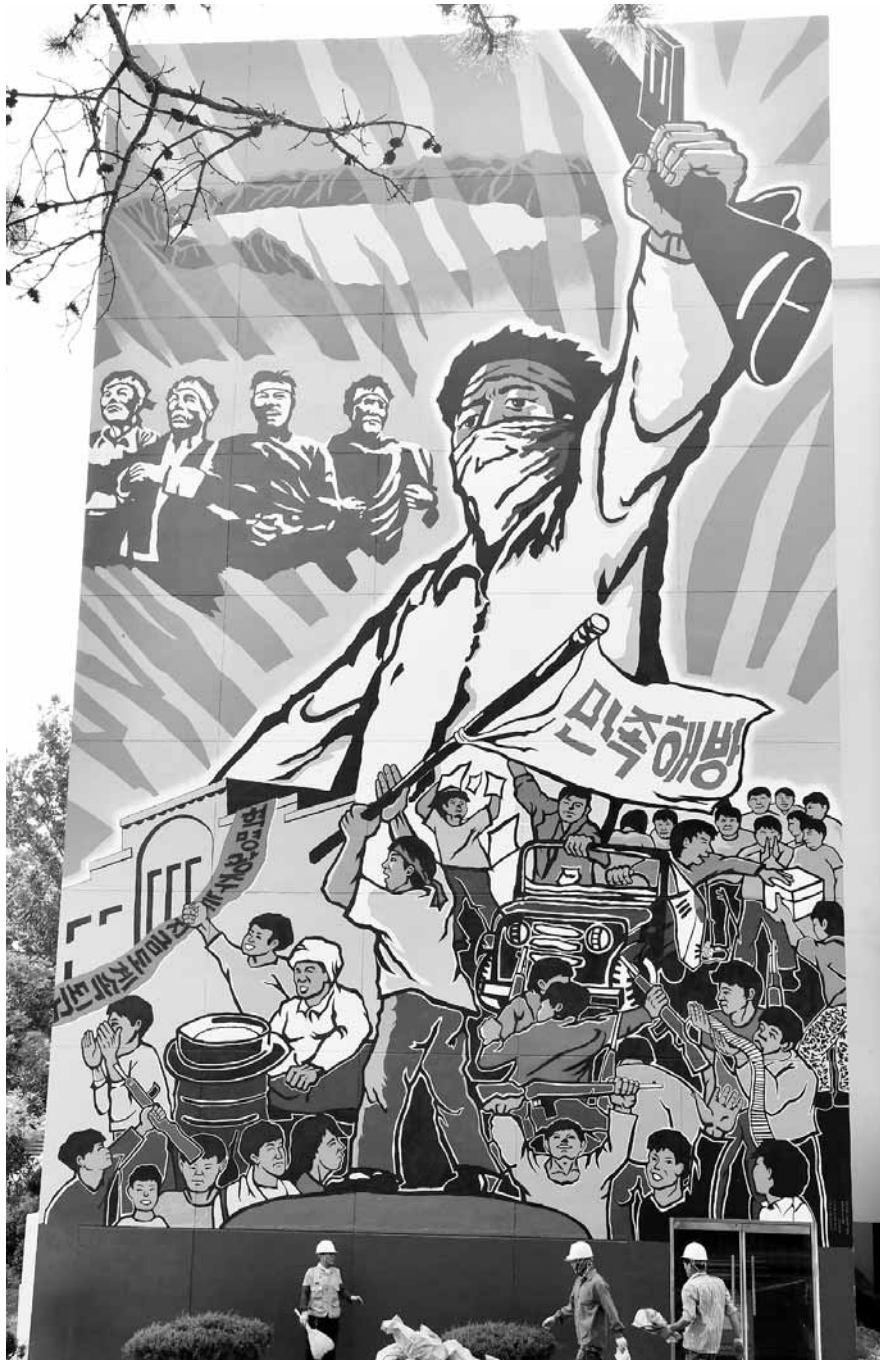
또 5·18 당시 계엄군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광주시민의 증언을 담은 문서, 계엄군 작전기록 등 관련 자료도 제출한 상태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5·18에 대한 전체적인 수사는 아니며, 고 조비오 신부 유족의 고소에 따라 헬기기총소사 여부에 대한 수사에 한정해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관련, “아직 그 단계까지 언급하기에는 이르며, 수사진행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단계별로 여러 방법이 동원될 수도 있다”고 말을 아꼈다.

김양래 5·18기념 재단 상임이사는 “기록에만 의존해야하는 국방부 5·18특별조사단은 기록이 위·변조, 누락됐을 경우 진실을 밝혀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적극적으로 당시 헬기 탐승자 등을 소환해 조사한다면 헬기 사격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그 함성 들리는가...전남대 ‘광주민중항쟁도’ 복원

지난 31일 5·18 민주화운동을 주제로 한 최초 벽화인 전남대학교 ‘광주민중항쟁도’가 복원 작업을 마치고 모습을 드러냈다. 복원작업을 추진한 전남대 민주동우회는 2일 제막식을 열고 공개할 예정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원전 시험성적서 320건 위·변조

### 위·변조 성적서 바탕 580개 부품 한빛원전에 납품

국내 가동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시험 성적서 6만53건을 조사한 결과 320건(0.5%)이 위변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영광 한빛원전에도 위·변조 시험성적서를 바탕으로 53개 품목 580개 부품이 납품된 것으로 조사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지난 31일 제7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외국업체 품질서류 불일치 조사 중간결과’를 보고했다.

원안위는 2012년 원전부품 시험성적서가 위변조된 사례를 적발한 뒤 국내 전체 원전을 대상으로 시험성적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험성적서는 부품의 설계 특성을 입증하는 서류로, 국내 업체가 발급하는 성적서와 해외업체가 발급하는 성적서로 구분된다. 이번 조사 대상은 해외업체가 발급하는 성적서다.

원안위는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 23

기의 부품(2008~2013년 납품)에 대한 외국업체의 시험성적서를 조사한 결과 총 6만53건 중 320건(0.5%)의 위·변조 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불일치 시험성적서를 통해 총408개 품목 8327개 부품이 납품됐으며 이중 140개 품목 3789개 부품이 설치됐다. 영광 한빛원전에는 53개 품목 580개 부품이 설치됐으며 이중 40개 품목 434개 부품은 이미 교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140개 품목은 대부분 볼트, 휴즈 등 소모성 부품으로, 원전 안전을 위해 긴급하게 조치해야 할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한 기기검증서가 비정상 운전조건 동안 성능을 유지하는지를 입증하는 서류) 전수조사도 진행 중으로 현재까지 위변조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금남로공원 명칭 ‘4·19공원’ 변경 보류

### ‘3·15공원’으로 변경 주장에

지난 31일 광주시 동구에 따르면 전남 동구청에서 지명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금남로 4·19공원’보다는 ‘3·15 기념공원’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호남 4·19혁명단체총연합회는 지명위원회에서 “광주 금남로에서 1960년 3월15일 낮 12시45분 부정 선거에 항거한 전국 최초 저항운동인 ‘곡(哭) 민주주의 장송’ 데모가 있었다”며 “광주 4·19혁명의 전신인 3·15 데모는 경남 마산보다도 3시간 빠른 것으로, 이를 알리고 조명

하기 위해서는 3·15 공원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지명위원회는 이에 따라 여론 수렴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명칭 변경 결정을 보류했다.

구는 역사적 사실 조사와 여론을 더 수렴해 명칭 변경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구는 올해 5월 광주·19민주혁명기념사업회가 4·19정신을 기리기 위해 ‘금남로공원’을 ‘금남로 4·19공원’으로 지명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자 지명위원회에 안건을 올렸다. 이를 위해 광주지역 16개 주요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지명 변경 관련 의견을 수렴한 결과 12개 단체가 찬성, 4개 단체가 기타 의견을 제시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노희용 전 광주 동구청장 항소심서 무죄

### 법원 “뇌물 공여자 진술 믿기 어려워”...검찰 상고 검토

납품계약을 대가로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노희용(55) 전 광주 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광주지법 형사1부(이인규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 전 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범죄사실에 대한 검사의 입증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비록 피고

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뇌물 공여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주는 돈을 선뜻 받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돈을 줬다는 시점과 장소, 피고인

과의 관계 등에 대한 뇌물 공여자의 진술에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노 전 구청장은 재입 중이던 2015년 7~11월 구청에 조영 설비를 납품해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지난 4월 1심에서는 뇌물 공여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유죄로 보고 징역형과 함께 벌금 300만원,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노 전 구청장은 2014년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기소돼 벌금형을 확정받아 당선무효가 됐다.

한편 검찰은 이번 판결에 대해 “적극적으로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여성 잔혹 살해 20대 무기징역 구형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정중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24)씨에게 이같이 구형하고, 15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처음 만난 여성을 잔혹하게 숨지게 한 후 고품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함에도 범행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반성의 기미도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6일 새벽 전남 순천 한 모텔에서 B(여·31)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순천=김은종기자 ekim@

## 집에서 키우려고...식당 개업 축하 화분 훔친 50대 주부




○...최근 개업한 식당 입구에 놓여있던 개업 축하 화분을 훔쳐 자신의 집에서 키운 50대 주부가 경찰서 행.

○...지난 31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김모(여·58)씨는 지난 2일 새벽 2시께 광주시 동구 용산동 한 식당 앞에서 식당 주인 임모(35)씨가 출입문 밖에 진

열하고 있던 시가 30만원 상당의 뽕강고 무나무 화분(높이 1.5m) 2개를 가져가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키웠다는 것.

○...주변 CCTV에 화분을 들고 200여m 떨어진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는 모습이 고소란히 찍혀 경찰에 붙잡힌 김씨는 “일이 파랏파랏해 집에 낚주면 분위가 가 좋아질 것 같아 가져갔다”며 선처를 호소.

김용희기자 kimyh@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 ★ [건물] 서구 쌍촌동 메인상권 지하2층 지상10층 대지 777㎡ 건물 5,900㎡ 매매 55억 (보17억1천 월1천1백 5십만)
- ★ [건물] 동구 동명동 대로변접 상가주택건물 5층 대지 452㎡ 건물 1,464㎡ 매매 17억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중심상권 일반상업지역 위치좋은 상무대로변 지상1층건물 대지 1342㎡ 건물 413,49㎡ 매매 49억
-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하남대로변 위치좋은 지하1층~지상7층 대지 867,90㎡ 건물 4124,36㎡ 매매 65억 (보5억 월수익 3천9백)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중심상권 상가 밀집지역 위치좋은 지하1층~지상5층 대지 198㎡ 건물 729㎡ 매매 25억 (보5억6천500만)
- ★ [고시원] 광주 동구 서석동 객실 36개 5층건물 1층커피 토지 423㎡ 건물 845,23㎡ 매매 18억 (대출7억 월수익1천3백)

**병원**

- ★ [의료시설] 전남 곡성군 오산면 요양병원 (2천평 신축부지 허가완료 포함) 지하층 지상5층 토지 19,860㎡ 건물 2,545㎡ 매매 50억
- ★ [의료시설] 광주시 남구 주월동 의료시설가능함 (현 상가건물임) 지하층 지상7층 토지 995㎡ 건물 2,030㎡ 매매 47억
- ★ [의료시설] 광주시 동구 산수동 지하층 지상4층 토지 597㎡ 건물 948㎡ 매매 20억
- ★ [의료시설] 광주시 북구 양산동 지상5층 토지 475㎡ 건물 1,044㎡ 매매 20억
- ★ [의료시설]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지하층 지상7층 토지 1,350㎡ 건물 3,943㎡ 매매 53억
- ★ [의료시설] 전남 화순읍 신기리 지하층 지상4층 토지 8,630㎡ 건물 6,300㎡ 매매 100억

**토지 추천 물건**

- ★ [토지] 전남 장성군 서삼면 추암리 생산관리지역 대지 2,720㎡ 매매7억 펜션부지, 전원주택 적합
- ★ [토지]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대규모 펜션 카페대지 15,668㎡, 건물 900㎡ 미래가치우수 매매가 상당후결정 인근 27홀 골프장 시설 부지 확정
- ★ [토지] 전남 곡성군 오산면 봉동리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임야 52,504㎡ 매매 평당5만
- ★ [토지] 서구 치평동 대로변접 대지 3470㎡ 매매 73억4천8백만
- ★ [토지] 광산구 송정동 대로변접 대지 1342㎡ 매매 45억
- ★ [토지] 동구 지산동 대로변접 자연녹지지역 대지 1,948㎡ 매매 27억 7천만
- ★ [토지] 전남 창평면 삼천리 계획관리구역 대지 3,041㎡ 매매 평당70만 전원주택 (단지조성가능) 적합
- ★ [토지] 북구 삼각동 1층주거지역 대지 1,326㎡ 매매 평당2백7십만

**공인중개사 김은희 010-6243-3704**